

스테디 셀러, 개정판 발간 잇따라

부처님이 계신다면 탄허 스님 지음 | 교림 | 1만7천원
반야심경, 금강경 정화 스님 지음 | 법공양 | 1만2천원 | 1만5천원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 대립 스님 옮김 | 초기불전연구원 | 6천원

기껏해야 초판 1천~2천여 권 정도가 간신히 팔리는 불교 출판 현실에서 재판이나 수정판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더구나 한번 절판된 책이 다시 불자들을 만나기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불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아 온 책들이 새 옷을 입고 다시 선보여 기쁜 마음으로 책을 집어 들었다. 1979년 첫 선을 보인 <부처님이 계신다면>과 97~98년 출간된 정화 스님의 <반야심경> <금강경>, 그리고 2003년 선보였던 대립 스님이 번역한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가 그것이다.

유물선(儒佛仙)에 능통했던 탄허 스님(1913~1983)의 강설집 <부처님이 계신

다면>은 불교계에서 보기 드문 '스테디 셀러'. 79년 초판 출간 후 지금까지 100만여 권 가까이 팔려나갔다. 93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개정판이 출간된 것으로 이번 개정판에서는 한글시대 불자를 위해 한자와 한글을 병기했고, 탄허 스님이 법문에서 인용한 불경과 고전의 한문 원문을 일일이 찾아 넣었다.

도서출판 교림의 서우담 대표는 "근대 최고의 학승(學僧)이었던 탄허 스님의 가르침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현대인들의 기호에 맞게 재편집했다"고 개정판 발간 의의를 밝혔다. 비록 '현대식' 옷을 입고 찾아왔지만, 스님의 명쾌한 법문은 그대로다. 한편, 교림은 탄허 스님이 번역한 <영가집>과 <살

심삼론> <보조법어> <육조단경> 등도 읽기 쉬운 활자로 바꿔 다시 펴냈다.

도서출판 법공양은 정화 스님의 <반야심경>과 <금강경>을 수정, 보완했다. 두 책 모두 1998년 시공사에서 출간한 <함께 사는 아름다움>에 들어 있던 것으로, 이번에 정화 스님이 직접 새로 다듬어 펴낸 것이다.

이 중 <반야심경>은 전체 내용을 계속 형식으로 펴낸 후 해설을 덧붙였다. 정화 스님은 "한 사람이 같은 경전을 읽더라도 내용에 대한 이해와 느낌이 달라지게 마련이다"며 "특히 1997년 서울 법림사에서 열린 특강 내용을 토대로 한 <금강경>의 경우 듣는 대중이 달라졌다는 점을 고려해 경전 풀이와 해설을 조금 달리했다"고 말한다.

출간되자마자 위빠사나 수행법에 관심 있는 불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는

초판 내용을 보완하는데 역점을 둔 개정판이 선보였다. 이 책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수행법으로 알려진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出入息念)'이 언급된 경전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경' '긴 라할라 교계경'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의 상세한 설명'을 소개한 문고판 서적.

초기불전연구원은 우선 초판에서 실수로 누락했던 '들숨날숨에 마음챙기는 경' 28~43 부분을 되살려 실었다. 또한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의 자세한 설명'을 지난해 연구원에서 펴낸 <정정도론>의 8장의 번역과 일치시켰다. 대립 스님은 "독자들의 애정 어린 지적에 힘입어 개정판을 출간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경전 번역과 교정, 편집을 좀 더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어렵고 귀찮다고 깨달음 포기할까

1960년대 초판, 종회에서 약소한 거마비를 받은 백인 스님은 연필을 구입해 통사 강연 학인들에게 나눠줬다. 그 연필에는 '정신차려, 백인'이라는, 스님이 직접 새긴 글씨가 또렷했다. 그때 연필을 받았던 한 학인이 오늘날 우리 불교 계율을 지켜 나가는 과수꾼이 되어 한 권의 책을 펴냈다. 과거사 영산율원 율주 철우

스님(사진)의 '계율단상' <욕심을 버리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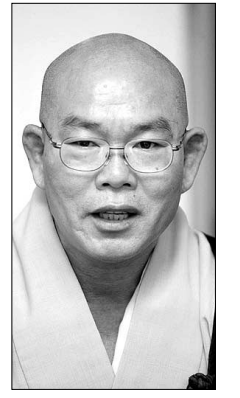
흔히 '어렵고 귀찮은 것' 정도로 여기는 계율의 참뜻은 무엇이며 어떻게 계율을 지켜야 하는지를 간략한 글을 통해 알려준다.

"계율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지니는 것이 아니라 불자라면 모두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불자의 덕목인

계율을 지킬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불자이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물론 작은 일에도 엄격한 잣대를 대야 하는 율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따가운 시선과 원망인 경우도 많다. 행자교육원 신체검사에서 떨어진 한 행자는 사리탑 기단에 올라가 '교육을 받게 해주지 않으면 분신하겠다'며 협박을 했다.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계율에 어긋난 일을 지적하면 '율사라고 유세한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하지만 스님은 "부처님도 계를 지키지 않으면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오늘날 수행자들이 계율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율장에도 없는 '반가사'를 즐겨 읽는 것이나 남녀간의 중매에 나서는 일 등을 경계하며 '진정한 수행자의 길'이 무엇인지 되새겨 보라고 충고한다.



삶에 숨은 행복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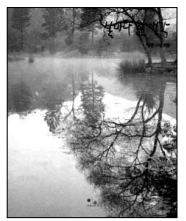
조계종 포교부장 일관 스님이 수상록 <날마다 한 생각>을 펴냈다. 1988년부터 도심포교의 원력을 세우고 서울 상계동 보현사와 불암사를 중심으로 대중불교운동을 펼치고 있는 스님이 포교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소회를 풀어냈다.

책에서는 '생활 속의 수행과 실천'을 강조하는 스님의 평소 신념과 수행자로서 느꼈던 감성들을 담담하고 편안하게 풀어내고 있다. 자연과 사람살이에 대한 단상과 오늘날 사회문제들을 짚어 보는 스님의 견해를 담았다. 또한 불자들의 수행과정에 대한 안내와 조언, 스님의 개인적인 인연에 얽힌 이야기 등도 담았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일화를 통해 진정한 행복과 깨달음이란 먼 곳에 있지 않고,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있는 생활의 현장, '바로 지금 이곳'에 존재함을 일깨워준다.

날마다 한 생각

일관 스님 지음 | 아름다운인연 | 7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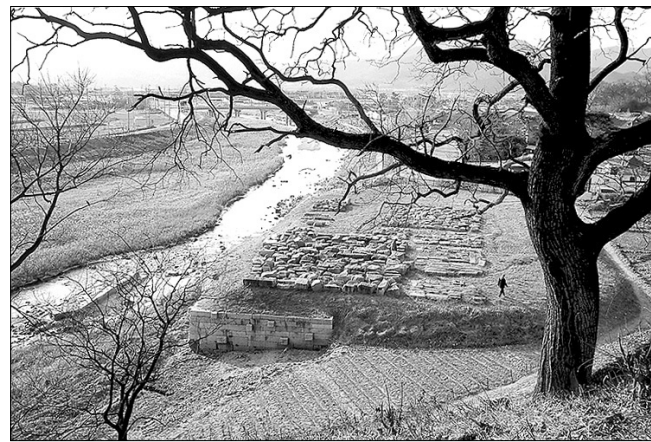
경주 시간여행의 길잡이

천년 고도를 걷는 즐거움
이재호 지음 | 한겨레신문사 | 1만5천원

많은 이들에게 경주는 '과거'의 도시다. 시내 곳곳에 솟아 있는 수백 년 된 왕릉과 한때 하늘을 찌를 듯한 위용을 자랑했으나 지금은 쓸쓸히 남아 있는 폐사지, 경주는 그렇게 우리는 수백 년 전 과거로 이끈다.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시간여행의 길잡이 어렵고 남성이 품고 있는 부처님의 모습도 찾기 힘들며 황룡사지의 옛 위용도 떠올리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호씨는 한국문화유산답사회 초대 총무로 1987년부터 전국의 문화유산을 기행했다. 그러다 '천년 고도(古都) 경주를 걷는 즐거움'에 빠져 아예 경주에 터를 잡았다. 10여 년간 여행객들에게 경주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던 그가 이번엔 책을 통해 경주를 소개한다.

지은이는 누구나 한 번쯤 가 보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주의 천년 고도 경주의 길잡이를 저명한 기행전문가 이재호씨는 경주의 숨겨진 매력 소개한다. 사진은 경주 반월성 위에서 내려다 본 월정교.



천년 고도 경주의 길잡이를 저명한 기행전문가 이재호씨는 경주의 숨겨진 매력 소개한다. 사진은 경주 반월성 위에서 내려다 본 월정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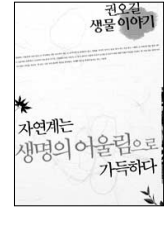
숨겨진 매력을 선사한다. 흥덕왕릉과 괴릉, 진평왕릉을 비롯해 칠포암각화, 옥산서원과 특락당 등 유명 관광지에 밀려 쉽게 관광객들이 찾지 못하는 곳을 비롯해 불국사와 석굴암, 두대리 마애불 등 경주를 경주이게 하는 불교문화재들도 소개한다. 지은이와 함께 문화유산 답사를 했던 유홍준 문화재정책은 추천사에서 "경주에 관한 한 그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길"이라고 밝힌다.

새로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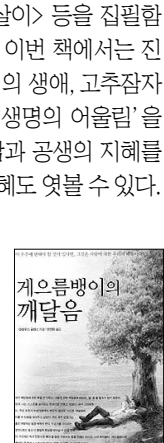
■ <묘법연화경해설-제24관세음보살보문품> (김현두 옮김, 아나, 1만8천원) = 부산 아나법화연수원에서 불교강의를 하고 있는 김현두씨가 <묘법연화경> 중 '관세음보살보문품'을 우리말로 풀었다. 김씨는 "불자들이 뜻도 모른 채 독송하고 있는 관세음보살보문품을 좀더 쉽고 친숙하게 다가서게 할 수 있도록 해설서를 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책 앞쪽에는 <묘법연화경>과 관세음보살 '보살도 수행의 정리' '기도하는 법' 등 관세음보살보문품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강의를, 뒤편에는 원문과 우리말 해설을 덧붙였다. (051)723-2261



■ <자연계는 생명의 어울림으로 가득하다> (권오길 지음, 청년사, 9천8백원) = 권오길 강원대 명예교수(생물학과)가 2년간 <주간조선>에 연재했던 '생물 예제' 50여 편을 책으로 엮었다. 권 교수는 청소년과 성인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생물 예제' <권오길 박사의 아름다운 생명 이야기> <꿈꾸는 달팽이> <생물의 다사일기> 등을 집필함으로써 생물학 대중화에 힘써왔다. 이번 책에서는 진달래꽃의 색깔과 꿀벌의 춤, 지렁이의 생애, 고추잠자리, 결구비행 등 우리가 몰랐던 '생명의 어울림'을 전해준다. 또한 생물들의 치열한 삶과 공생의 지혜를 발휘하며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지혜도 엿볼 수 있다.



■ <계몽행방의 깨달음> (다테우스 플라시 지음, 안진환 옮김, 북스노우, 8천5백원) =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스스로가 무한한 존재임을, 온 우주에 생명이 깃들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깨달음의 경지는 유언의 의식상태, 즉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상태. 깨달음이란 어떤 정해진 한계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확장 그 자체이다.' 20여 년간 종교를 초월한 '깨달음'의 세계를 추구해 온 다테우스 플라시의 철학서로 지은이는 "자신이 의식하던 그렇지 않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과 자신은 하나"이며 "주변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깨달음이 시작된다"고 말한다. 1972년 미국에서 출간돼 서너달 만에 5만여부가 팔려나갔고 이후 5개국에서 출간돼 스테디셀러 목록을 차지하고 있다.



블서구입은 www.yosiamun.com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열람!
전국 대산사원의 인가제자인 대원문계현 선사가 역저한 <마로보인 선문열람>
전3권중 제1권 출간
최초로 1,454칙의 본공안을 한 권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운명"을 읽고 나면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히규 실화소설

주요 수록내용
공화 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땀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저 처제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 이야기
성형수술 이야기
제발 시집 가고 싶어요
세 번 결혼한 겁사님
입액과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주세요
두 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저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책속 부록
▶ 생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 꿈 해몽 비법 ▶ 띠로 보는 궁합
▶ 달로 보는 궁합 ▶ 시(時)로 보는 궁합
▶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 삼재법

전 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 (예금주: 오히규)
농협 601175-52-016521

신국판 350쪽
각권정가 10,000원

50% 할인판매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경주광역시 북구 청곡(영월)동 374-2번지
전화: 062-266-6693

상도동 보문사 시민선원 개원법회

시민선원을 개원하여 회향법회를 봉행하오니
는 밝은 불자들의 동참바랍니다.

■ 증명법사: 송광사 유나 현목스님
■ 일시: 2005년 11월6일(음 10월 5일) 오전 11시
■ 연락처: (02)823-7443
02)814-8793 (주지실)

◆ 유유년 동안거 입방안내: 선착순 30명 (24시간 개방)
◆ 유유년 음력 10월 초하루 법회
• 법사: 직지사 대진스님
• 일시: 2005년 11월 2일(음10월 1일) 오전 11시

대한불교조계종 상도동 보문사 선원장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기초과정 ● 전문과정 ● 맥진법 ● 사암침술 ● 주요요법
▶ 내용: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법, 오형처방법, 침술주요요법(一鍼法), 배교정법, 실습위주 강좌
▶ 개강: 2005. 11. 7 월·화반(주·아간: 3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법(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있어, 명리수준을 최고로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후와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용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명리전문과정 정통풍수강좌
토요일, 일요일 전문과정 특강

사암침술학회

• 서울: 종로3가 16번지 교영빌딩 407호
문의: (02)747-9136, 011-307-2975